2025-11-17

HI FX Brief

불안 심리 지속 VS 정부 개입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1,470원대에서 정부 개입 가시화

- 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성 발언으로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 폐쇄가 종료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은 일단 주춤해짐. 다만, 단기 자금시장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보다 동결 확률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약세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침
- 유로화는 2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재차 1.16달러 수준을 회복함. 달러 약세와 급락하던 파운드화 가치 안정 등이 유로 강세 재료로 작용함
- 엔화는 다카이치 정부의 추경 실시 뉴스 등으로 약세를 보임. 현재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규모는 14조엔에 달해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3년도 이후 최대 규모임
- 역외 위안화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 내수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짐
- 호주달러는 달러 약세와 호주 고용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강셀르 보임
-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개입 영향으로 전주대비 하락함.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1,470원대까지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은 정부 개입 및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등으로 일단 하락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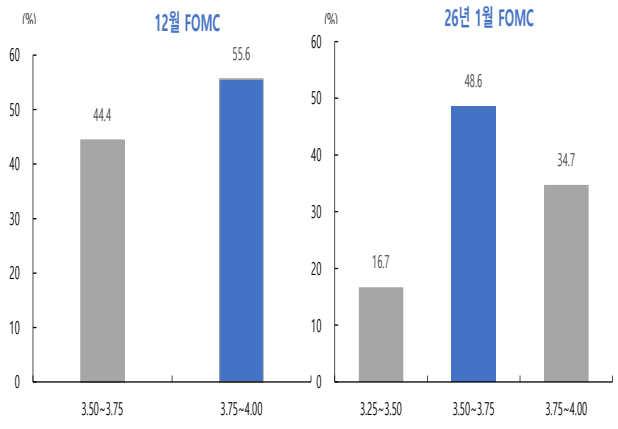
	11월 14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3	-0.31	-8.47
유로-달러	1.162	0.48	12.24
달러-엔	154.6	0.74	-1.69
역외 달러-위안	7.10	-0.38	-3.25
호주달러-달러	0.65	0.69	5.66
달러-원	1,453.1	-0.57	-1.30

달러-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

금주: 미국 단기 자금시장 안정이 여전히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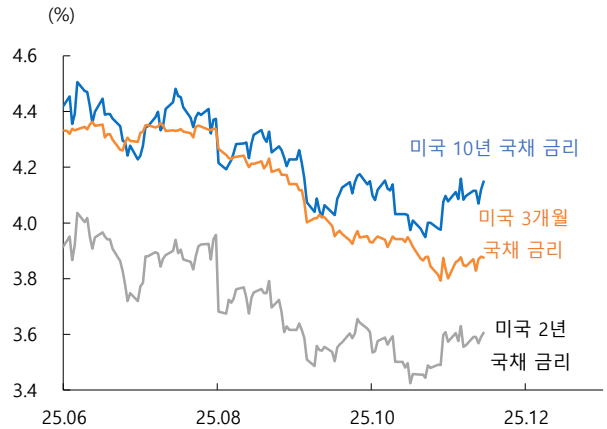
- 연방 정부 폐쇄가 종료되었지만 연방 정부기능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제 지표 발표 지연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물론 단기 자금시장 경색 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미국내 단기 자금시장 완화, 즉 각종 신용지표와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 여부가 달러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또한 오는 21일 일본 정부의 대규모 추경 실시 결정 이후 엔화 추이도 주목해야할 변수임
- 정부가 구두개입 및 실(?) 개입을 통해 1,470원대에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달러-원 환율은 추가 상승보다 대외 변수를 지켜보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420~1,470원으로 전망함

그림1. 12월 FOMC회의에서 인하보다 동결 확률이 높아짐(11월 14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 연준 금리정책 불확실성으로 국채 금리의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